

광주시, 풍영정천 환경사고 대책 걸돌아

광주시는 지난 4월 물고기 폐사와 폐수 유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의 환경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안전관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면서 광주시의 걸도는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안동 풍영정천 봉머리교부터 하남교까지 6~8km 구간에서 붕어 수백여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에 나서는 한편, 풍영정천 주변 하남산단 입주업체에서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물고기 집단폐사 2년 새 수차례 환경사고 대응책 마련 '헛구호'

이에 앞서 지난 4월17일에도 광주 광산구 하남3교 아래 풍영정천에서 오염물질 유입으로 물고기 수천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퇴적물 부패와 세제 활성화 무단 배출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죽음을 당하는 등 환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풍영정천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시는 지난 4월 환경오염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포함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각종 환경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시료채취 장비도 구입키로 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하남산단은 지난 1991년에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 8만, 폐수 유출량이 하루 1만에 달하고 폐수나 기름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사업비 419억원을 투입해 풍영정천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거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물고기 집단폐사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주시의 대응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 직후 '사후야방문' 식으로 환경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풍영정천 사랑모임을 중심으로 한 수안지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풍영정천의 적정 수량유지와 오폐수 유입원 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수로 빠진 70대, 8일만에 숨진 채 발견

가뭄 속 단비가 내리자 밭의 물꼬를 트다 수로에 빠진 70대 농민이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나주시 죽산보 둔치신착장 영산강변에서 이모(7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3분께 나주시 노안면 자신의 고추밭에서 삼으로 물길을 내는 작업을 하려다 인근 1.5m 깊이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는 점과 실종 당시와 인상착의가 같은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소나성 집중호우에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고추밭이 빗물에 잠기지 않도록 일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가 실종된 당일 나주 노안면에는 153mm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시간당 50mm 넘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다.

고장난 화물 운반 승강기 떨어져 50대 숨져

인천의 한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물 운반용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박스에 담겨져 있던 화물이 승강기에 끼면서 고장나 1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26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골포체 화물을 운반하던 승강기가 고장나 1층에서 고장 원인을 점검하던 골포체 제조업체 대표 A(52)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승강기의 정식 사용 승인 여부와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편의점 2곳서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편의점 2곳에 들어가 돈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1분께 부산 남구 남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19일 오전 3시 55분께 남구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도서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검거

경북 청도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이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께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서 A(57)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B(52·여)씨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서 70대 노인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

부산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

4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집 안에서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빌라 4층 A(71)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안방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5일 전 A씨가 소주를 사갔다는 빌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의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 남구 흥기난동 의원 '사퇴서' 제출

공공청사에서 흥기로 난동을 부린 기초의원이 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구의회는 남구청에서 흥기난동을 부린 A의원의 의원직 사퇴의향을 밝혔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사퇴서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장기적 갈등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남구청의 빠른 원상회복과 정치적·도도적 책임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남구민의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는 12일자로 의원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앞서 오는 11일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퇴할 뜻을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의원은 지난 5월11일 오전 9시께 남구청사 1층 엘리베이터에 세워져 있는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남구노조 파켓 2점을 흥기로 훼손해 수사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는 6월22일 윤리특위를 구성해 A의원에 대해 징계에 나섰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서은홍 기자



시민의 목소리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옆에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김승영 작가의 '시민의 목소리'가 전시되어 있다. 스피커 200여 개를 쌓은 모양으로 5.2m 높이의 청동탑 '시민의 목소리'는 공공미술작품을 순환 전시하는 서울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이다.

'왜 무시해' 이웃 둔기 살해 70대 이상 검거

자신을 무시한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이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서는 4일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마을 이장 A(7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께부터 오후 9시 사이 담양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B(67)씨의 집에

서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맹인인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마을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B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 계속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화가 나 때렸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6월28일 "숨겨 있는 B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 해상서 상선 2척 충돌...선원 전원 구조

완도 해상에서 대형 상선 2척이 충돌해 승선원 18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4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께 완도군 어룡도 북방 1.3km해상에서 승선원 9명이 타고 있는 488급 상선

A호와 1592급(승선원 9명) 상선 B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 우현선미 부분에 구멍이 생겨 선박 일부가 침수됐으며 선원들은 경비함정과 민간자력 구조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영웅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